

2017년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 목 차 >

I. 개요	1
1. 일반대학원 개황	3
2. 보고서 개요	5
II. 평가	7
1. 학술연구	9
1.1 교원 연구실적	9
1.2 대학원생 연구실적	11
1.3 연구윤리	13
2. 산학협력	15
2.1 기술이전	15
2.2 특허	17
2.3 연구비	19
3. 교육역량	20
3.1 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	20
3.2 전임교원 강의 비율	22
3.3 신입생 충원율	24
3.4 중도탈락학생 비율	26
3.5 졸업생 취업률	28
4. 국제화	30
4.1 외국인 대학원생	30
4.2 외국인 대학원 교원	32
4.3 외국어 강좌 개설	33
5. 행정역량	34
5.1 대학원 예산	34
5.2 장학금	35
5.3 행정조직 및 직원	36
5.4 학생 인권 및 복지 여건	37

Ⅲ. 종합 및 논의	39
1. 학술연구	41
2. 산학협력	42
3. 교육역량	43
4. 국제화	45
5. 행정역량	46

< 표 목 차 >

1. 학술연구

<표 1-1> 대학원 교원 연구실적 현황	9
<표 1-2> 대학원 교원과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비교	9
<표 1-3> 대학원생 연구실적 현황	11
<표 1-4> 연구윤리 관련 제도 현황	13

2. 산학협력

<표 2-1> 대학원 교원의 기술이전 수입 현황	15
<표 2-2> 기술이전 수입 세부현황	15
<표 2-3> 대학원 교원의 특허 등록 실적 현황	17
<표 2-4> 특허 등록 실적 세부현황	17
<표 2-5> 대학원 교원의 연구비 실적 현황	19

3. 교육역량

<표 3-1> 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 현황	20
<표 3-2> 전임교원 강의 비율 현황	22
<표 3-3> 신입생 충원율 현황	24
<표 3-4> 중도탈락학생 비율 현황	26
<표 3-5> 졸업생 취업률 현황	28
<표 3-6> 졸업생 취업률 세부현황	28

4. 국제화

<표 4-1> 외국인 대학원생 현황	30
<표 4-2> 국가별 외국인 대학원생 현황	30
<표 4-3> 외국인 대학원 교원 현황	32
<표 4-4> 외국어 강좌 개설 현황	33

5. 행정역량

<표 5-1> 대학원 예산 현황	34
<표 5-2> 장학금 현황	35
<표 5-3> 행정조직 및 직원 현황	36
<표 5-4> 학생 인권 및 복지 여건 현황	37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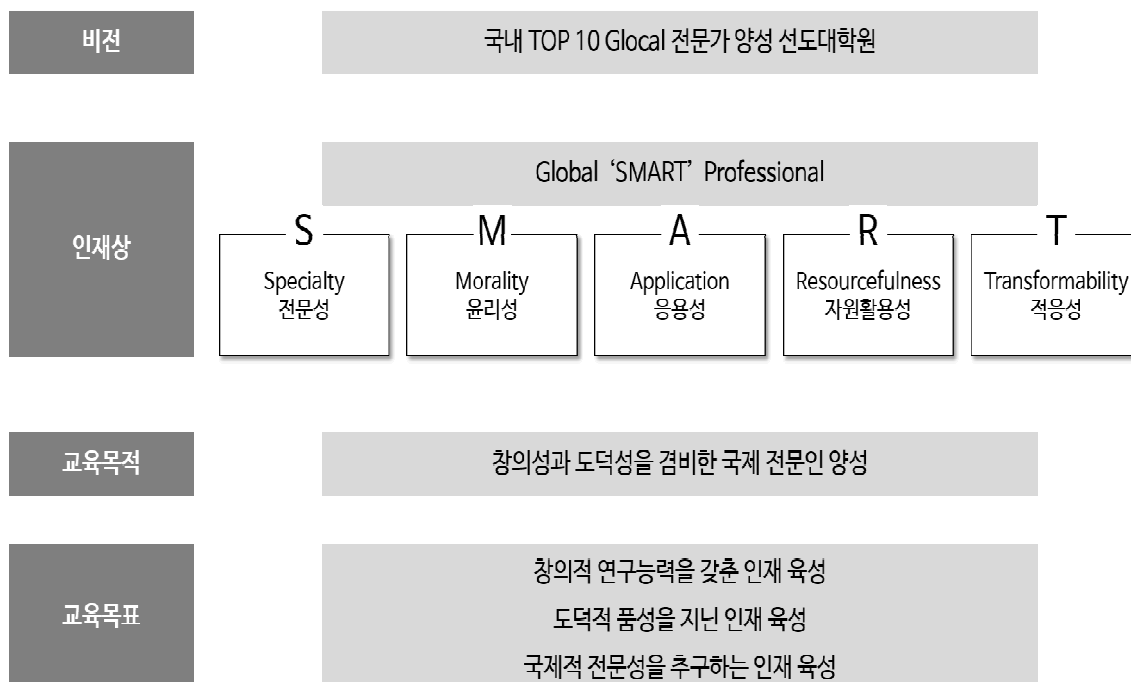
개요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1. 일반대학원 개황

▶ 일반대학원 비전 및 인재상



▶ 일반대학원 연혁

2017	4. 28.	석·박사학위과정 융합교육학과 신설
	3. 1.	경영학과(계약학과) 신설
2016	2. 4.	전기·전자융합시스템공학과(계약학과) 신설
2012	8. 27.	보건복지부 임상영양사교육기관으로 지정
	5. 19.	동천관(대학원 건물) 준공봉헌 예배
2007	3. 1.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생원과의 석·박사학위과정 복수학위제(1+2)개설
2006	3. 1.	이태리 도무스아카데미와의 석사학위과정 복수학위제(1+1)개설
1998	1. 21.	성서캠퍼스 대학원(후생관) 준공 개관
1967	1. 26.	대학원 설립 인가

▶ 일반대학원 학과 (2017학년도 2학기 학과 편성표)

계열	학과명
인문사회 (32개)	국어국문학과, 한국문화학과,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 일본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철학과, 역사·고고학과, 신학과, 경영학과, 경제·소비자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관광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법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 문헌정보학과, 경찰행정학과, 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과, 중국학과, 영어교육학과, 미술사학과, 통·번역학과, 패션비즈니스학과, 국제지역학과, 융합교육학과
자연과학 (9개)	통계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공중보건학과, 식품가공학과, 환경과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공학 (8개)	건축학과, 화학공학과, 도시계획및교통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재료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예·체능 (6개)	음악학과, 미술학과, 미디어아트학과, 디자인학과, 체육학과, 예술치료학과
의학 (1개)	의학과

- 석사학위과정 56개학과 정원 398명, 박사학위과정 52개학과 정원 170명을 모집함

2. 보고서 개요

▶ 자체평가 목적

- 자체평가를 통해 대학원이 교육기관으로서 갖추고 있는 요건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자기점검 과정을 가짐
- 평가 후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피드백과정을 통해 대학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
- 「고등교육법」 제11조2(평가)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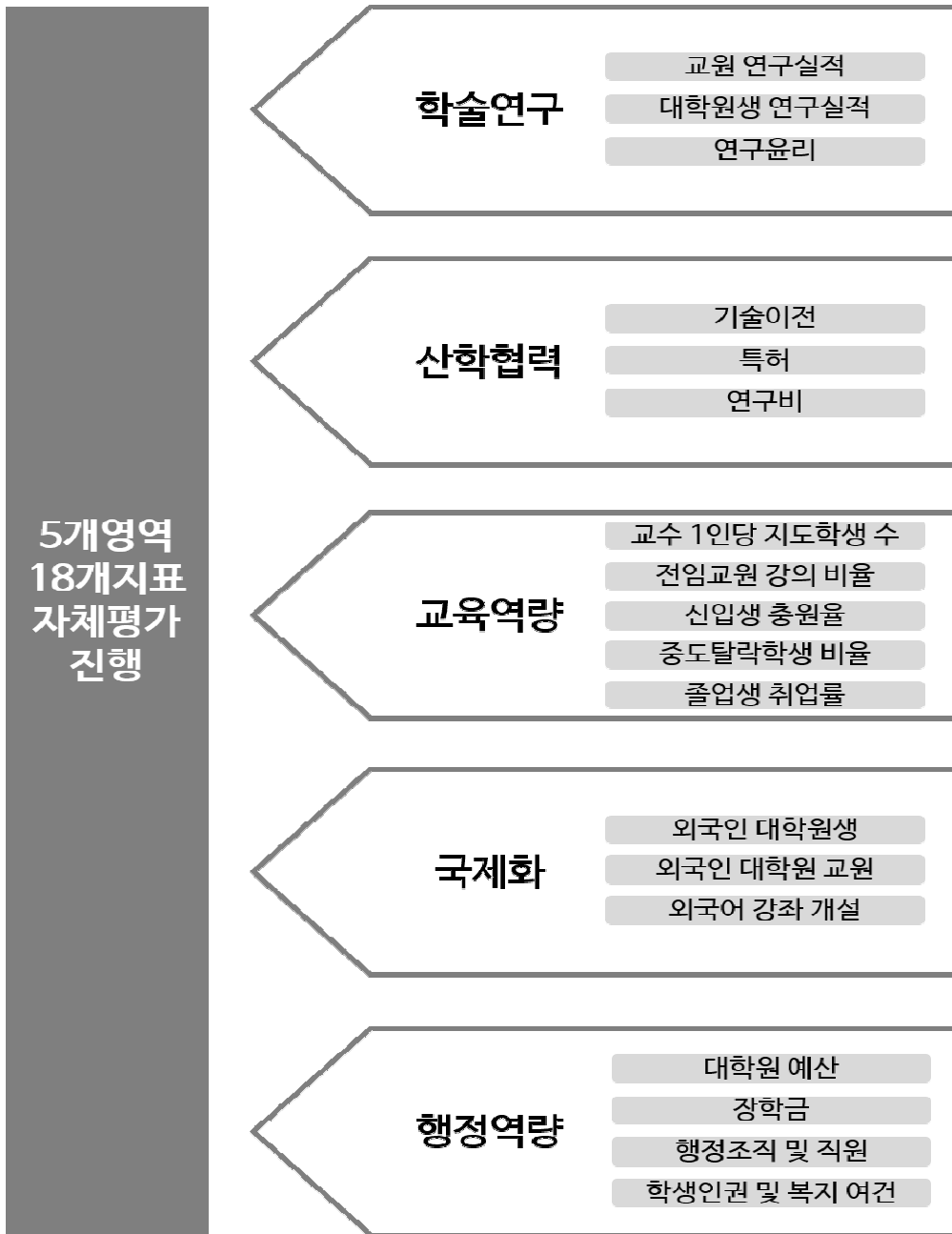
▶ 평가일정

평가 일정	내용
2017. 09. 1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2017. 09. 21	평가지표별 현황 검토
2017. 10. 19.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초안 집필
2017. 11. 02.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세부사항 협의
2017. 11. 16.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수정 및 논의
2017. 11. 29.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완성
2017. 12. 06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보고 및 공시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연번	소속	구분	성명	평가영역
1	중국학전공 교수(대학원장)	위원장	조수성	총괄
2	화학공학과 교수(대학원부원장)	위원	이병환	자료수합 및 분석
3	중국학전공 교수	위원	유정원	학술연구분야
4	신소재공학과 교수	위원	변명환	산학협력분야
5	법학과 교수	위원	이로리	교육역량분야
6	일본학전공 교수	위원	김명수	국제화분야
7	사회학과 교수	위원	임운택	행정역량분야

▶ 자체평가 지표



- 2017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평가 편람 및 평가결과, 2016년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발전계획 보고서, 2017학년도 후기 석·박사학위과정 학사 안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및 관련부서 협조자료 등을 참고함

II

평가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1. 학술연구

1.1 교원 연구실적

<표 1-1> 대학원 교원 연구실적 현황 (단위: 명, 편, 권)

		2015년	2016년
대학원 교원 수		431	409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414.6	398.1
SCI급/SCOPUS 학술지 논문		103.4	97.0
저역서		80.5	31.7
교원 1인당 실적	연구재단등재(후보)지 논문	0.96	0.97
	SCI급/SCOPUS 학술지 논문	0.24	0.24
	저역서	0.19	0.08

- 대학원 교원은 해당 연도에 일반대학원의 해당 학과에서 강의를 하였거나 지도하는 대학원생이 1명 이상인 전임교원임
- 논문 및 저역서 실적 산정 기준은 대학정보공시의 기준을 준용함
- 의학과는 제외함

<표 1-2> 대학원 교원과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비교 (단위: 편, 권)

	대학원 교원	전임교원
연구재단등재(후보)지 논문	0.97	0.63
SCI급/SCOPUS 학술지 논문	0.24	0.23
저역서	0.08	0.12

- 2016년 연구실적을 사용함

- 2016년 대학원 교원 수가 전년 대비 431명에서 409명으로 감소한 것과 비례하여 연구실적 총계는 다소 감소함
- 2016년 교원 1인당 논문실적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은 2015년 0.19편에서 2016년에 0.08편으로 감소하여 약 57.9%정도 감소함
- 대학원 교원 1인당 연구실적을 계명대학교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과 비교

한 결과 국내논문 연구실적은 상대적으로 0.34편 높아 대학 내 연구역량이 우수한 교원이 대학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년과 대비하여 유일하게 감소하였던 저역서 실적은 전임교원 실적과 비교해서도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대학원 교원은 양호한 연구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 내 전임교원의 연구실적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대학원 교원의 연구역량이 우수한 이유는 교원의 연구실적을 고려하여 논문 지도교수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대학원 교원의 연구실적 중 저역서 실적이 다소 낮은 원인은 박사 지도교수 선정 시 논문실적만을 자격조건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대학원 교원의 저역서 연구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박사과정 논문지도교수 조건에 저역서 실적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대학원 교원의 학술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 대학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논문 및 저역서 연구지원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대학원생 연구실적

<표 1-3> 대학원생 연구실적 현황

(단위: 명, 편)

		2016년
대학원생 수	석사	971
	박사	520
	소계	1,491
논문	연구재단등재(후보)지	20.2
	SCI급/SCOPUS 학술지	7.36
학술대회발표	국내	28.9
	국제	36.7
대학원생 1인당 실적	연구재단등재(후보)지	0.014
	SCI급/SCOPUS 학술지	0.005
	국내 학술대회 발표	0.019
	국제 학술대회 발표	0.025

- 대학원생 수는 '교육기본통계조사'에서의 일반대학원 재적 학생(재학생+휴학생) 수와 연구등록한 수료생 수를 합한 수임
- 논문 인정 기준은 [1-1] 교원 연구실적의 논문실적 기준을 따름
-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연구실적만을 사용함
- 의학과는 제외함

- 2016년 7월부터 대학원생 연구실적 입력을 시작하여 현황 자료에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연구실적이 누락되어 있음
- 1인당 대학원생 연구실적은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로 조사되었으며 6개월간의 실적이 누락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1인당 0.06편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임

- 2017년 2학기부터 석사학위 논문을 학위취득 필수조건으로 채택하지 않는 학과가 늘어나면서 대학원생 연구실적의 감소가 우려되는 바, 다양한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대학원에서는 학술지논문게재, 학술대회발표, 소규모 연구활동, 학술연구 논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장려정책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나 이를 지도하는 대학원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우리 대학원생의 연구실적 절대수치가 매우 낮으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원의 적극적인 지도와 공동연구가 필요함
- 인문사회계열 대학원 교원이 대학원생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논문 집필과 함께 학생 지도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고 연구업적 인정비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단독연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대학원 교원이 대학원생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학생지도 실적을 별도로 인정해줌으로써 대학원생과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1.3 연구윤리

<표 1-4> 연구윤리 관련 제도 현황

			2017년
대학 자체 연구윤리 규정 제정 여부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			○
연구윤리 교육	교원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여부(연1회 이상)	○
		교육 이수 의무/필수 여부	△
	학생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여부(연1회 이상)	○
		교육 이수 의무/필수 여부	○
표절 검색 프로그램 (논문유사도 검색 프로그램)	도입 여부		X
	논문 제출 시 의무 활용 여부		○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검증·판단 체계	제도화 여부 (제보, 조사위 구성, 조사 절차, 후속조치 등의 명문화)		○
	조사위 공정성 확보 (해당분야 전문가 50%, 외부위원 30% 이상 참여)		○

- 제도 및 규정 등이 있을 경우 '○' 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윤리 관련 제도와 규정이 완비되어 있음 • 교내외 연구비를 수주한 대학원 교원은 반드시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대학원생이 학위 청구 논문 발표신청을 할 경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연구윤리 강좌를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교내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과 같은 외부 기관의 논문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
--

- 대학원생이 올바른 연구습관을 배양하도록 논문작성 및 연구윤리 필수 이수 과정(P/F 혹은 1학점 필수과목)에 관한 교과목을 신규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표절검색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과 연구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함. 이는 우리대학원 연구성과의 질적 성장과 올바른 연구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됨

2. 산학협력

2.1 기술이전

<표 2-1> 대학원 교원의 기술이전 수입 현황 (단위: 천원)

	기술이전 수입	
	2015년	2016년
인문	6,930	-
자연	46,000	54,280
공학	176,300	184,500
합계	229,230	238,780

- 대학원 교원은 해당 연도에 일반대학원의 해당 학과에서 강의를 하였거나 지도하는 대학원생이 1명 이상인 전임교원임
- 의학과는 제외함

<표 2-2> 기술이전 수입 세부현황 (단위: 명, 원)

계열	연도	대학원 교원 수	기술이전 수입	교원 1인당 기술이전 수입
인문	2015년	218	6,930,000	31,789
	2016년	202	-	-
자연	2015년	79	46,000,000	582,278
	2016년	81	54,280,000	670,123
공학	2015년	68	176,300,000	2,592,647
	2016년	72	184,500,000	2,562,500

-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기술이전 수입이 인문계열을 제외한 자연 및 공학계열에서 증가하였음
- 특허 등록 건수 대비 기술이전수입 실적은 양호하지 않음
- 자연계열 대학원 교원의 최근 2년간의 기술 이전 수입 증가율(18%) 대비 공학계열 대학원 교원의 최근 2년간의 기술 이전 수입 증가율(4.7%)이 상대적으로 낮음
- 자연계열 대학원 교원 1인당 기술 이전 수입료는 전년 대비 15.1% 증가하였

으나, 공학계열 대학원 교원 1인당 기술 이전 수입료는 전년 대비 1.2% 소폭 감소함

- 계열별/학과별 기술이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운용의 필요성이 있음
- 가족회사 및 지역 유망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연구비 수주 사업에서 기술이전수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술이전을 위한 전담조직의 강화를 통한 적극적 기술 이전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음

2.2 특허

<표 2-3> 대학원 교원의 특허 등록 실적 현황 (단위: 건)

	국내특허		국제특허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실적	55.21	58.58	9.82	1.30
교원 1인당 실적	0.13	0.14	0.02	0.003

- 대학원 교원은 해당 연도에 일반대학원의 해당 학과에서 강의를 하였거나 지도하는 대학원생이 1명 이상인 전임교원임
- 의학과는 제외함

<표 2-4> 특허 등록 실적 세부현황 (단위: 명, 건)

계열	연도	교원 수	국내특허	교원 1인당 국내특허	국제특허	교원 1인당 국제특허
인문	2015년	218	6.15	0.028	-	-
	2016년	202	1.45	0.007	-	-
	소계	420	7.60	0.035	-	-
자연	2015년	79	20.54	0.26	2.94	0.037
	2016년	81	15.10	0.19	0.15	0.002
	소계	160	35.64	0.45	3.09	0.039
공학	2015년	68	28.19	0.42	6.88	0.10
	2016년	72	41.07	0.57	1.15	0.016
	소계	140	69.26	0.99	8.03	0.12
예체능	2015년	66	0.33	0.005	-	-
	2016년	54	0.96	0.018	-	-
	소계	120	1.29	0.023	-	-

- 국내특허건수는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으나, 국제특허건수는 전년 대비 86.8% 감소하였음
- 교원 1인당 국내특허건수는 전년 대비 7.7% 증가하였으나, 교원 1인당 국제특허건수는 전년 대비 85% 감소하였음
- 특허 출원에 대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출원 대비 등록 건수 비율을 산정하지 못함
- 인문계열의 경우 특허 출원 및 등록이 용이하지 않는 분야이지만 최근 2년 국내 특허 총 건수는 7.6건으로 조사되었음. 2016년 국내 특허 총 건수가 전년 대비 76.4% 감소하였음
- 자연계열의 경우 최근 2년 국내 특허 총 건수는 35.64건으로 조사되었음. 2016년 국내 특허 건수가 전년 대비 26.5% 감소하였음. 교원 1인당 특허 실적 또한 전년 대비 27% 감소함
- 공학계열의 경우 특허 출원 및 등록이 타 계열과 비교하여 용이한 분야로서 최근 2년 국내 특허 총 건수는 69.26건으로 조사되었음. 2016년 국내 특허 건수가 전년 대비 45.7% 증가하였음. 교원 1인당 특허 실적 또한 전년 대비 35.7% 증가함

- 특허실적이 우수한 K-스타교수 및 K-스타학생의 발굴, 운영을 통해 연구의 창의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가족회사 및 지역 유망 기업들과의 산학연 기술 개발 프로그램 확대 시행이 필요함
- 최근 연구 사업에서 특허의 중요성 및 관련 기업들과의 기술 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환경에서 특허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2.3 연구비

<표 2-5> 대학원 교원의 연구비 실적 현황 (단위: 천원)

	내부연구비		외부연구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연구비	664,000	505,500	13,917,826	13,871,428
교원 1인당 연구비	1,541	1,236	32,292	33,915

- 대학원 교원은 해당 연도에 일반대학원의 해당 학과에서 강의를 하였거나 지도하는 대학원생이 1명 이상인 전임교원임
- 의학과는 제외함

- 최근 2년간 내부연구비는 2015년 대비 2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원 교원 수가 5.1% 감소하여 교원 1인당 내부 연구비는 19.8% 감소하였음
- 최근 2년간 외부연구비는 2015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교원 1인당 외부 연구비는 5% 증가하였음
- 추후 계열별 내부 및 외부연구비의 통계적 비교가 필요함

- 연구환경 개선을 통해 대학원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학연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 과제 수주의 단계적 증가를 꾀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 기업들과의 긴밀한 연구 협력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기업과의 산학 연구 과제 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3. 교육역량

3.1 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

<표 3-1> 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 현황 (단위: 명)

		2015년 1학기	2015년 2학기	2016년 1학기	2016년 2학기
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		3.17	3.21	3.16	2.94
대학원생	석사	827	825	845	814
	박사	399	396	401	451
	계	1,226	1,221	1,246	1,265
지도교수 없는 학생 수		213	265	352	482
지도학생 수 별 교수 수	지도학생 1명	123	100	103	114
	2명	59	70	58	47
	3명	44	42	37	33
	4명	35	23	24	19
	5명	12	17	17	12
	6명	12	13	9	14
	7명	11	8	10	9
	8명	7	8	7	6
	9명	5	2	5	2
	10명 이상	12	15	13	10
	지도교수 수	320	298	283	266

- 대학원생 수는 '교육기본통계조사'에서의 일반대학원 재적 학생(재학생+휴학생) 수와 연 구등록한 수료생 수를 합한 수임
- 지도학생은 대학원생 가운데 지도교수가 있는 학생임
- 의학과는 제외함

- 2015년 1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4개 학기의 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의 평균은 3.12명으로 적정수준으로 판단됨
- 비교대상 기간 학기별 변화추이를 보면, 3.17명, 3.21명, 3.16명, 2.94명으로 2016년에는 2015년에 비해 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는 없음

- 이러한 변화는 지도교수 없는 학생 수가 비교대상 기간 동안 매 학기 증가한 데 반해, 지도교수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임
- 비교대상 기간 동안 학기별로 대학원생 수는 증가하였고, 이 중 지도교수 없는 학생 수 또한 213명, 265명, 352명, 48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학기별 지도교수 수는 320명, 298명, 283명, 266명으로 계속적으로 감소함

- 비교대상 기간 동안은 규정에 의해 입학 후 둘째 학기부터 지도교수를 정할 수 있었으므로 신입생은 지도교수가 없는 학생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2학기부터 첫째 학기부터 지도교수를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교수별 지도학생 수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대학원생에 대한 상시지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원업적 평가 시 지도학생 수에 따른 차등적 업적평가 배점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3.2 전임교원 강의 비율

<표 3-2> 전임교원 강의 비율 현황

(단위: 학점, %)

		2015년	2016년
총 개설 강의학점		2,322	2,625
전임교원	강의학점	1,918	2,325
	비율	82.6	88.6
비전임교원	겸임교원	강의학점	23
		비율	0.99
	초빙교원	강의학점	60
		비율	2.6
	시간강사	강의학점	285
		비율	12.3
	기타	강의학점	36
		비율	1.6
	계	강의학점	404
		비율	17.4

- 대학정보공시 12-나-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중 대학원 강의만을 작성함
- 의학과는 제외함

- 2016년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88.6%로, 2015년 82.6% 대비 6%포인트 상승함
- 이는 2016년 총 개설강의 학점이 2,625학점으로, 2015년 2,322학점 대비 303학점 추가 개설되었고, 전임교원이 담당한 비율이 2016년 2,325학점으로 2015년 1,918학점 대비 407학점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비전임교원 강의비율은 2016년 11.4%로 2015년 17.4% 대비 6%포인트 감소하였는데, 시간강사는 12.3%에서 8.2%로, 초빙교원은 2.6%에서 1.5%로, 겸임교원은 0.99%에서 0.91%로, 기타는 1.6%에서 0.8%로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은 학과의 경우 신입교원 충원을 통하여 대학원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높이도록 장려함
- 전임교원이 전공 내 비전임교원과 팀티칭을 하거나 타전공 교원과 융합교과/통합교과를 팀티칭으로 운영하여 강의내용의 전문성, 다양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임교원의 강의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전임교원의 대학원 강의담당 비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3.3 신입생 충원율

<표 3-3> 신입생 충원율 현황

(단위: 명, %)

		2015년	2016년	2017년	
석사	입학정원	398	398	398	
	지원자	정원 내	535	456	421
		정원 외	65	54	97
	입학자	정원 내	374	342	299
		정원 외	47	39	52
	신입생 충원율		94.0	85.9	75.1
박사	입학정원	170	170	170	
	지원자	정원 내	297	238	225
		정원 외	11	14	47
	입학자	정원 내	170	168	170
		정원 외	10	12	41
	신입생 충원율		100	98.8	100
계	입학정원	568	568	568	
	지원자	정원 내	832	694	646
		정원 외	76	68	144
	입학자	정원 내	544	510	469
		정원 외	57	51	93
	신입생 충원율		95.8	89.8	82.6

- 석박사 통합과정을 박사과정에 합산하여 표기함
- 연도별 전기(3월)와 후기(9월)를 합산함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석사 및 박사 신입생 충원율 현황을 보면, 2015년 95.8%에서 2016년에는 89.8%로 6.0%포인트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82.6%로 2015년 대비 13.2%포인트, 2016년 대비 7.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박사에 비해 석사 신입생 충원율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석사의 경우, 2015년 94.0%, 2016년 85.9%, 2017년 75.1%로 비교대상 기간 매년 8.1%포인트, 10.8%포인트씩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박사과정의 경우 비교대상 기간 동안 2016년에만 신입생 충원율이 98.8%이었고, 2015년, 2017년 모두 100%를 달성함
- 이는 우리대학의 석사과정으로의 신입생 유인 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신입생을 유인할 수 있는 타 대학원과 차별화되는 특성화, 전문분야 부족, 둘째, 사회의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원 교육콘텐츠 개발 및 지원 부족, 셋째,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들 수 있음
- 또한 인문/자연/공학/예체능 계열별, 전공별로 신입생 유인 요인의 특수성들이 존재하므로,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개별적 특수성을 갖는 문제점들 또한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대학원 내 융합/통합전공개발을 통하여 차별화된 특성화, 전문화 분야를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홍보함
- 대학원 교육콘텐츠 신규개발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그 결과를 학부 신규교과목 개발과 마찬가지로 교육업적에 반영함
- 대학원 가상강좌 개발, 집중강의제 등 학위과정의 다양한 교육모듈을 구성하여 대구 및 전국의 취업자를 대학원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함
- 학위과정 수요자(단체) 중심의 지리적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공간 활용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이동식 수업 도입 등을 검토함
- 장학금 지급 및 확충, 국내외 세미나 참여 지원 등 대학원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제공함

3.4 중도탈락학생 비율

<표 3-4> 중도탈락학생 비율 현황

(단위: 명, %)

		2015년	2016년
석사	재적학생	943	879
	중도탈락학생	43	79
	비율	4.6	9.0
박사	재적학생	419	413
	중도탈락학생	13	21
	비율	3.1	5.1
석·박사 통합	재적학생	13	12
	중도탈락학생	3	2
	비율	23.1	16.7
계	재적학생	1,375	1,304
	중도탈락학생	59	102
	비율	4.3	7.8

- 의학과는 제외함

- 중도탈락학생 비율은 2016년에 7.8%로 2015년 4.3% 대비 3.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도탈락학생 비율은 박사과정보다 석사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에 4.6%였던 비율이 2016년에는 9.0%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박사과정의 경우 중도탈락학생 비율은 2015년 3.1%, 2016년 5.1%로 2%포인트 증가함
- 석·박사 통합과정에서는 중도탈락학생 비율이 2015년 23.1%에서 2016년 16.7%로 6.4%포인트 감소함
- 중도탈락학생들의 탈락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정확한 사유를 파악할 수 없으나 탈락사유의 일반적 유형으로 미등록, 미복학, 자퇴, 수업연한초과 등이 있음
- 추정되는 학생들의 개별적 사유로서 취업, 학업상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전공 불만족, 타 대학원 진학, 건강문제, 기타 일신상의 사유 등을 들 수 있음

- 중도탈락학생 비율을 줄이기 위해 중도탈락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그러한 측면에서 지도교수의 대학원생 면담(대면, 유선, 이메일 접촉 등)에 대한 기록들도 학부생 상담내역 기록과 마찬가지로 에드워드 시스템 상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대학원생들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파악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학원에 대학원생들의 고충과 불만을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5 졸업생 취업률

<표 3-5> 졸업생 취업률 현황 (단위: %)

	졸업생 취업률	
	2015년	2016년
인문	59.0	62.5
자연	72.5	71.4
공학	84.2	62.9
예체능	28.9	22.2
합계	61.9	60.5

- 의학과는 제외함

<표 3-6> 졸업생 취업률 세부현황 (단위: 명, %)

연도	계열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취업 불가능자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자	취업률
2015	인문	196	69	18	0	0	55	6	59.0
	자연	100	66	6	0	0	3	0	72.5
	공학	41	32	2	0	0	1	0	84.2
	예체능	47	13	0	0	0	2	0	28.9
	합계	384	180	26	0	0	61	6	61.9
2016	인문	198	80	12	0	0	50	8	62.5
	자연	67	45	1	0	0	3	0	71.4
	공학	39	22	2	0	0	2	0	62.9
	예체능	30	6	2	0	0	1	0	22.2
	합계	334	153	17	0	0	56	8	60.5

- 2016년의 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은 60.5%로 2015년 61.9% 대비 1.4%포인트 감소함
- 2016년 기준으로 2015년 대비 취업률이 상승한 인문계열(+3.5%포인트)을 제외하고, 공학(-21.3%포인트), 예체능(-6.7%포인트), 자연(-1.1%포인트)계열에서 취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졸업자 인원이 가장 많은 계열은 인문(198명), 자연(67명),

공학(39명), 예체능(30명) 순이며, 졸업생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열은 자연 (71.4%), 공학(62.9%), 인문(62.5%), 예체능(22.2%) 순으로 나타남

- 2015년 및 2016년 기준, 졸업자 중 진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자 수가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계열은 인문계열로 파악됨
- 최근 2년간 진학자가 가장 많은 계열은 인문(30명), 자연(7명), 공학(4명), 예체능(2명)순으로 나타났음. 계열별 진학률은 인문(7.6%), 공학(5%), 자연(4.2%), 예체능 (2.6%) 계열 순으로 나타남

- 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도학생의 졸업 후 취업현황 통계를 확보하고, 학부와 마찬가지로 관련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매칭 서비스 제공 등 취업 대책에 관한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사회, 산업계의 전문 인력 수요를 발굴하고, 그러한 수요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교과과정 개발 및 산학연계 활동이 장려되어야 함
-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양방향 멘토(직장인)-멘티(풀타임 학생)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취업률 향상을 도모함

4. 국제화

4.1 외국인 대학원생

<표 4-1> 외국인 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

		2015년	2016년
대학원생 수		1,403	1,491
외국인 학생	학생 수	172	161
	비율	12.3	10.8
외국인 중도탈락 학생	학생 수	6	4
	비율	0.4	0.3

- 대학원생 수는 '교육기본통계조사'에서의 일반대학원 재적 학생(재학생+휴학생) 수와 연구등록한 수료생 수를 합한 수임
- 의학과는 제외함

<표 4-2> 국가별 외국인 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개)

연도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대만	몽골	네팔
2015	119	5	1	4	2	1	4	4
2016	110	2	2	7	3		2	2
연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러시아
2015	1	1	2	2	2	1	1	1
2016		3	1	2	2	1		
연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2015	3	1		5	4		1	
2016	4	2	1	5	6	1	1	1
연도	폴란드	헝가리	가나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수단	총계	총국가수
2015	2	1	1	1	1	1	172	27
2016	1	1	1				161	23

- 대학원생 수는 2015년 1,403명에서 2016년 1,491명으로 88명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학생 수는 172명에서 161명으로 감소하여 외국인 학생이 전체 대학원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2.3%에서 10.8%로 감소함
- 외국인 중도탈락 학생 수는 2015년 6명에서 2016년 4명으로 감소하여 전체 대학원생에서 차지하는 중도탈락 학생 수의 비중 또한 같은 기간 0.4%에서 0.3%로 감소함
- 대학원 유학생 수와 출신국가 수는 2015년 총 172명 27개국에서 2016년 161명 23개국으로 인원과 출신국가 수에서 모두 감소하였음
- 외국인 대학원생 중 중국 유학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음

- 유학생 유치국가의 다변화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나 각각의 비중에 있어서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중국은 여전히 유학생 유치 국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추가 가능한 선택과 집중의 대상 지역으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중도탈락률이 그리 높지 않으나 향후 예상되는 중도탈락의 원인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만족도와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언어 능력 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는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수준의 저하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교수 및 대학원생의 국제학술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각 국가의 언어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 출신 유학생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들의 학문적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계명대학교 학생들의 국제적 진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예컨대, 지역학 관련 연구소에 해당 국가의 대학원생을 연구 조교로 채용하여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4.2 외국인 대학원 교원

<표 4-3> 외국인 대학원 교원 현황

(단위: 명, %)

	2015년	2016년
대학원 교원 수	431	409
외국인 교원 수	29	30
외국인 교원 비율	6.7	7.3

- 대학원 교원은 해당 연도에 일반대학원의 해당 학과에서 강의를 하였거나 지도하는 대학원생이 1명 이상인 전임교원임
- 의학과는 제외함

- 외국인 대학원 교원 수는 2015년 29명에서 2016년 30명으로 1명 증가하여, 전체 교원 수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교원의 비중 또한 같은 기간 6.7%에서 7.3%로 소폭 상승함
- 2016년 대학원 외국인 교원 비율은 7.3%였으며 2016년 우리대학의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10.7%(898명중 96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 차원에서 계열별 공통과목 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영어 이외의 외국어 수업 개설 시에도 시수를 상향 인정하는 등의 장려정책을 통해 대학원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함
- 외국인 학생의 학업의 편이성과 국내학생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유학생이 많은 학과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국인 교원이 대학원 교과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우리 학생들의 연구 수준 제고와 국제화 성과의 확대를 위해 대학원생들과 외국인 교원의 공동연구를 적극 지원함

4.3 외국어 강좌 개설

<표 4-4> 외국어 강좌 개설 현황

(단위: 개)

		2015년	2016년
외국어 강좌 수	1학기	28	17
	2학기	20	29
	합계	48	46

- 외국어 강좌란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강좌를 의미함
- 의학과는 제외함

-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강좌는 2015년 48개에서 2016년 46개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 강좌에서 사용되는 외국어의 구성은 2015년도의 경우 총 48개 강좌 중 영어가 39개, 일본어가 6개, 중국어가 3개로 전체의 81.3%가 영어 강좌였음
- 2016년도의 경우 영어가 42개, 일본어가 1개, 중국어가 3개로 전체의 91.3%가 영어 강좌였음

- 영어 이외의 외국어 수업 개설 시에도 시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장려정책을 통해 대학원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판단됨
- 우리 대학 한국인 학생들의 외국어 수업 참여를 장려하여 국제화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권유하고, 필요할 경우 공동연구로 이어지도록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의 자발적 수강 참여 여부가 외국어 강좌 활성화의 열쇠가 되므로, 대학원생들의 외국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티칭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5. 행정역량

5.1 대학원 예산

<표 5-1> 대학원 예산 현황

(단위: 원, 명, %)

	2015년	2016년
대학 전체 예산	175,967,353,000	174,021,177,000
대학원 지원비	883,878,066	1,001,702,302
재학생 수	1,360	1,236
대학예산 중 대학원 지원 비중	0.50	0.58
재학생 1명당 대학원 지원비	649,910	810,439

- 대학의 전체 예산은 결산서 기준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재정규모임
- 대학원 지원비는 순수하게 대학원을 위해 사용한 사업성 경비이며, 결산서 기준으로 인건비와 장학금을 제외한 규모임

- 2016년 대학전체예산 중 대학원 지원비는 0.58%로 전년대비 0.08%포인트 소폭 증가함
- 대학원 재학생수가 전년대비 124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재학생 대학원 지원비는 전년 대비 160,529원이 늘어나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라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예산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지원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규모가 다소 미흡하여 지원비중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학원 지원비(연구비, 학술활동 지원비 등)의 확충을 연구성과, 대학원 활성화와 연계시켜 지원비를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집행할 필요가 있음

5.2 장학금

<표 5-2> 장학금 현황

(단위: 원, 명, %)

		2015년 1학기	2015년 2학기	2016년 1학기	2016년 2학기
등록금	등록금 총 책정액	4,677,567,000	4,456,212,000	4,365,633,000	4,099,408,000
	재학생 수	1,047	994	968	907
	1인당 평균 등록금	4,467,590	4,483,111	4,509,951	4,519,744
장학금	총계	3,002,148,400	3,066,252,800	2,900,488,900	2,877,061,000
	교외	189,358,300	306,439,800	246,037,700	339,543,800
	교내	2,812,790,100	2,759,813,000	2,654,451,200	2,537,517,200
재학생 1인당 장학금		2,867,381	3,084,761	2,996,373	3,172,063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중		64.2	68.8	66.4	70.2

- 등록금 총 책정액은 등록금 고지서에 책정된 금액의 총합임
- 의학과는 제외함

- 2015년 1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총 4학기 동안 대학원 재학생 수가 140명 감소하여 등록금 책정액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대비 재학생의 장학금 비중은 64.2%에서 70.2%로 6%포인트 증가하였으며, 2016년 2학기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3,172,063원에 이르고 있음
- 경향적으로 지난 네 학기 동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발전을 이루어냈음
- 재학생의 감소로 교내 장학금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2015년 1학기 대비 2016년 2학기 교외장학금은 79.3% 증가하여 대학원의 연구역량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교외장학금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거나 이는 대체로 재학 중인 대학원생에게 수혜가 가는 것이므로, 대학원에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교내 장학금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여가는 것이 필요함

5.3 행정조직 및 직원

<표 5-3> 행정조직 및 직원 현황 (단위: 명, 개)

		2015년	2016년
대학원 행정조직 유무		○	○
대학원생 수		1,403	1,491
학과 수		58	53
행정직원 수	합계	5.25	5.75
	전담직원	5	5.5
	겸직직원	0.5	0.5
행정직원당 학생 수		267	259
행정직원당 학과 수		11.1	9.2
대학원 행정실 조교 수		2	2

- 행정직원 수는 1학기과 2학기 수의 평균값을 사용함
- 겸직직원은 일반대학원 행정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직원임(0.5명 인정)
- 대학원생 수는 '교육기본통계조사'에서의 일반대학원 재적 학생(재학생+휴학생) 수와 연구등록한 수료생 수를 합한 수임
- 의학과는 제외함

- 대학원 담당 전문 행정조직이 있으며, 2016년의 대학원 평균 전담직원, 겸직 직원과 조교는 각각 5.5명, 0.5명, 2명으로 전년대비 큰 변화가 없음
- 직원 1인 당 학생수는 2016년 기준으로 259명으로 여전히 높은 편임

- 대학원 연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대학원 전담직원 수를 보충할 필요가 있음. 전담직원 총원 이전에 계열별로 행정업무 지원의 구체적 요청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단대별 연구지원 방식을 다각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학과별 조교의 수가 부족하여 대학원생들이 연구보다는 행정부분에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학원 학과 조교의 총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5.4 학생 인권 및 복지 여건

<표 5-4> 학생 인권 및 복지 여건 현황 (단위: 명, %)

		2015년	2016년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유무		X	○
재학생 수		1,214	1,102
기숙사 수용 인원	전체 수용 인원	2,447	2,447
	수용 대학원생 수	38.5	42.5
	기숙사 수용률	3.2	3.9
	기숙사 지원자 수	39	49
	입사 경쟁률	1.01 : 1	1.15 : 1

- 기숙사 수용 대학원생 수는 1학기과 2학기의 평균값을 사용함
- 의학과는 제외함

- 2016년에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제정되어 대학원생이 연구 활동에서나 학내에서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받게 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대학원생의 기숙사 수용률은 3~4% 수준으로 그리 높다고 볼 수 없으나 입사 경쟁률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대학원생들이 권리장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입학시 이에 대한 내용을 공지해줄 필요가 있음
- 지난 2년 동안 대학원생들의 기숙사 입사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으므로 당분간 대학원생에 대한 기숙사 제공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Ⅲ

종합 및 논의



1. 학술연구

▶ 평가 요약

- 대학원 교원의 학술연구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대학 전체 전임교원과 비교했을 때 논문실적은 우수하고 저역서 실적은 다소 부족하였음
- 대학원생 연구실적은 2016년 하반기에 실적을 입력하기 시작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1인당 실적이 0.06편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윤리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제도화가 완비되어 있음

▶ 발전방안

- 대학원 교원의 저역서 실적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도교수 자격 조건에 저역서 실적을 첨가하고 대학원 내 저역서 지원 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대학원생과 대학원 교원의 공동연구 실적에 대해 학생지도 실적을 별도로 인정함으로써 대학원 교원의 대학원생 지도를 유인함
- 연구윤리가 강화되고 있는 학계 분위기를 고려하여 논문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교육과 연구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2. 산학협력

▶ 평가 요약

- 대학원 전체 계열의 기술이전 수입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 추세가 양호하나 특허 등록 건수 대비 기술이전 수입은 양호하지 않음. 특히 공학계열에서의 기술이전 수입 실적 향상이 도모되어야 함
- 대학원 전체 계열의 특허 출원에 대한 통계를 산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원 대비 등록 건수 비율의 산정이 필요함
- 대학원 전체 계열의 국내 특허 실적의 증가세는 양호하나, 국제 특허 실적의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내부연구비의 감소에 따른 대학원 연구 능력 저하 가능성이 보임. 외부과제 수주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발전방안

- 최근 연구비 수주와 관련하여 기술이전 수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이전을 위한 전담조직의 강화와 적극적인 기술이전 전략을 통한 가족회사 및 지역 유망 기업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조성 및 확충이 필요함
- 계열별/학과별 기술이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혹은 전담인력 배치의 필요성이 있음
- 특허 실적의 증가를 위한 K-스타교수 및 K-스타학생 발굴 및 운영을 통해 연구의 창의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가족회사 및 지역 유망 기업들과의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의 연구 기술 개발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 및 연계 가능성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환경 개선을 통해 대학원 연구 경쟁력을 우선 확보하고 산학연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 과제 수주의 단계적 증가를 도모해야 함

3. 교육역량

▶ 평가 요약

- 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는 2015년 1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4개 학기 평균 3.12명으로 적정수준으로 판단됨
-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2015년 대비 2016년에 증가하였고, 비전임교원 강의비율은 감소함
- 신입생 충원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감소함. 박사예 비해 석사 신입생 충원율의 감소가 두드러짐
- 중도탈락학생 비율은 2015년 대비 2016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중도탈락학생 비율은 박사과정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61.9%, 60.5%로 나타남

▶ 발전방안

- 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를 산출하는데 있어 지도교수 없는 학생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과제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2학기부터 첫째 학기에 지도교수를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전임교원의 대학원 강의를 교육업적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 둘째, 신입교원 충원을 통하여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높이도록 장려, 셋째, 전임교원이 전공 내 비전임교원과 팀티칭을 하거나 타전공 교원과 융합교과/통합교과를 팀티칭으로 운영하여 강의내용의 전문성, 다양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임교원의 강의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융합/통합 전공개발, 둘째, 교육콘텐츠 신규개발을 장려, 셋째, 가상강좌, 집중강의제 등 학위과정의 다양한 교육모듈을 구성하여, 대구 및 전국의 취업자를 대학원으로 유인, 넷째, 학위과정 수요자(단체) 중심의 지리적 접근성 확보 방안 마련, 다섯째, 장학금 지급 및 확충 등 적극적인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중도탈락학생 비율을 줄이기 위해 중도탈락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그러한 측면에서 첫째, 대학원생 면담(대면, 유선, 이메일 접촉 등) 기록 관리, 둘째, 대학원생들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파악, 셋째, 대학원생들의 고충/불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지도학생의 취업현황 통계 확보 및 관련 분야 취업정보, 취업매칭 서비스 제공 등 취업지원 강화, 둘째, 사회, 산업계의 전문 인력 수요 발굴, 수요 탄력적인 교과과정 개발 및 산학 연계 활동 장려, 셋째, 계열별 특성을 반영한 멘토(기관, 직장인)-멘티(풀타임 학생) 프로그램 시행 지원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4. 국제화

▶ 평가 요약

- 최근 2년간 대학원에서 외국인 학생 수와 비중이 감소했으며 중도탈락 학생 수도 감소함
- 유학생 유치 국가의 다변화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나 중국 유학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대학원 전체 교원 중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교원의 비중은 상승하였으나, 우리 대학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에 비해 낮은 편으로 평가됨
- 외국어 강좌의 경우 영어가 대부분을 차지했음

▶ 발전방안

-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도탈락 원인을 파악하여 선제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학생들의 만족도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유학생 유치를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전공의 경우 외국인 교원으로 하여금 교과목을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우리 학생들과 외국인 교원의 공동연구를 적극 지원하여 연구 수준 제고와 국제화 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외국어 강좌의 경우 학생들의 자발적 수강 참여 여부가 외국어 강좌 활성화의 열쇠가 될 것임.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외국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티칭방법을 고민하고 개발해야 할 것임

5. 행정역량

▶ 평가요약

- 전년대비 2016년 대학원 지원비가 늘어나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등록금대비 장학금 비중과 교외 장학금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음
- 대학원 담당 행정직원 수의 큰 변화가 없으며, 행정직원당 학생 수가 많음
-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숙사 수용률은 적정 수준임

▶ 발전방안

-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원 예산 지원 비중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원의 선택과 집중(연구성과, 총원율, 학술활동 등)이 필요함
- 우수 학생 총원을 위해 교내 장학금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대학원 전담직원 수를 늘리되, 단대별 연구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고,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과 조교의 증원이 필요함
- 입학 시 대학원생들에게 권리장전에 대한 공지가 필요함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